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	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6. 15.(수) 07:00 (국제엠바고)	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 16:30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중 (044-215-2830)
		담당자	사무관 조찬우 (044-215-2831) (sogood5925@korea.kr)

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

□ 2022년 **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**(IMD)의 **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**는 **63개국 중 27위** 기록, 전년대비 **4단계 하락**

* 계량지표는 '21년 기준이며, 서베이지표는 '22.3~5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영

* 한국 순위 : ('15)25 ('16)29 ('17)29 ('18)27 ('19)28 ('20)23 ('21)23 **('22)27**

□ **분야별**로는 **인프라**(1단계↑) 분야에서 순위가 **상승**하였으나, **경제성과**(4↓), **정부효율성**(2↓), **기업효율성**(6↓) 분야에서 **순위 하락**

○ **인프라**(17→16위): **기술**(2↓)·**과학**(1↓) 인프라와 **보건·환경**(1↓) 분야 **순위가 하락**하였으나 **기본인프라**(2↑)·**교육**(1↑) 분야 중심으로 **상승**

○ **경제성과**(18→22위): **국제무역**(3↑)·**물가**(2↑) 분야 **순위가 상승**하였으나 **국내경제**(7↓)·**국제투자**(3↓)·**고용**(1↓) 분야 중심으로 **순위 하락**

* 국내경제 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5→12위로 큰 폭 하락

○ **정부효율성**(34→36위): **기업여건**(1↑) 분야 **순위가 상승**하였으나 **재정**(6↓)·**조세정책**(1↓)·**제도여건**(1↓)·**사회여건**(2↓)에서 **순위 하락**

○ **기업효율성**(27→33위): 금융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으나, **생산성**(5↓)·**노동시장**(5↓)·**경영활동**(8↓)·**행태가치**(2↓) **순위 하락**

□ **새정부 경제정책방향** 등을 통해 공공·노동·교육·금융·서비스 **5대 부문 구조개혁**과 **민간 활력 제고** 등 **국가경쟁력 제고 노력 강도높게 추진**

※ **[첨부자료] '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**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'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

1 국가별 평가결과

□ 상위 10개국 중 작년 3위였던 **덴마크**가 **1위**를 **차지**하였으며, 싱가포르(5→3위), 홍콩(7→5위), 대만(8→7위) 등 순위 상승

○ 작년 1위였던 **스위스**는 **2위**로 하락. **핀란드**가 10위권 내 **신규 진입**(11→8위)한 반면, **UAE**는 **10위권 밖**으로 **순위 하락**(9→12위)

<상위 10개국 전년대비 순위표>

구분	덴마크	스위스	싱가포르	스웨덴	홍콩	네덜란드	대만	핀란드	노르웨이	미국
'21년	3	1	5	2	7	4	8	11	6	10
'22년	1	2	3	4	5	6	7	8	9	10
등락	**2**	**△1**	**2**	**△2**	**2**	**△2**	**1**	**3**	**△3**	**-**

※ IMD는 코로나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,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에 적응도가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
2 우리나라 주요 평가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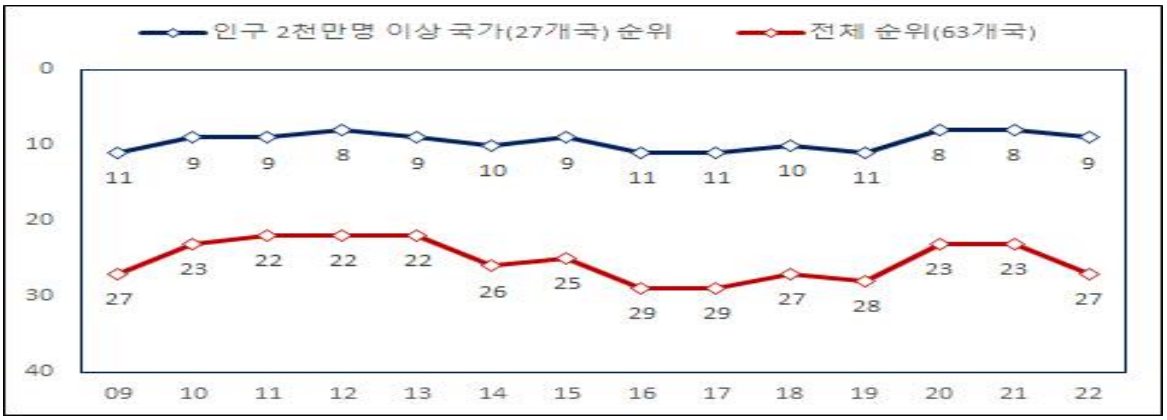
□ '22년 평가결과 **한국**은 **63개국 중 27위**로 전년대비 **4단계 하락**

* 계량지표는 '21년 기준이며, 서베이지표는 '22.3~5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영

* 한국 순위 : ('15)25 ('16)29 ('17)29 ('18)27 ('19)28 ('20)23 ('21)23 ('22)27

↳ '89년 순위 발표 이래 역대 최고는 22위('11~13년), 최저는 41위('99년)

<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>



○ **2천만명 이상 국가** 중에는 **전년보다 1단계 하락**한 **9위** 기록

○ **30-50 클럽 국가** 비교시 **전년과 동일**하게 프랑스·일본·이태리보다 높으나 미국·독일·영국에 뒤져 **4위 유지**

□ **분야별**로는 **인프라 순위**가 **소폭 상승**(1단계↑)한 반면, **경제성과**(4↓), **정부효율성**(2↓), **기업효율성**(6↓) **순위 하락**

* 4대 분야, 20개 부문별 순위를 구분·발표(총 334개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책정)

<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>

	경제성과 (18 → 22, 4↓)					정부 효율성 (34 → 36, 2↓)					기업 효율성 (27 → 33, 6↓)					인프라 (17 → 16, 1↑)				
	국내경제	국제무역	국제투자	고용	물가	재정	조세정책	제도여건	기업여건	사회여건	생산성	노동시장	금융시장	경영활동	행태가치	기본인프라	기술인프라	과학인프라	보건환경	교육
'21년	5	33	34	5	51	26	25	30	49	33	31	37	23	30	21	18	17	2	30	30
'22년	**12**	**30**	**37**	**6**	**49**	**32**	**26**	**31**	**48**	**35**	**36**	**42**	**23**	**38**	**23**	**16**	**19**	**3**	**31**	**29**
등락	△7	**3**	△3	△1	**2**	△6	△1	△1	**1**	△2	△5	△5	-	△8	△2	**2**	△2	△1	△1	**1**

3 우리나라 분야별 평가결과

□ (경제성과: 18→22위) **국제무역**(3↑)·**물가**(2↑) 분야 순위가 **상승**하였으나 **국내경제**(7↓)·**국제투자**(3↓)·**고용**(1↓) 분야 중심 순위 **하락**

○ 특히, **국내경제**(5→12위) 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**지난해 높은 순위**를 기록한 데 따른 **반사효과**로 순위가 큰 폭 하락

* 실질 GDP 성장률(지표/순위) : ('21년 발표)△1.0%'20/7위 → ('22년 발표)4.0%'21/45위
1인당 실질 GDP 성장률(지표/순위) : ('21년 발표)△1.09%'20/6위 → ('22년 발표)4.22%'21/41위

※ 각년도 IMD 평가기준시점의 수치이며, 이후 잠정치, 확정치 발표시 변경(예: 실질 GDP 성장률 ('20년) △0.7%, ('21년) 4.1%)

	'16	'17	'18	'19	'20	'21	'22
경제성과	21	22	20	27	27	18	**22**
- 국내경제	18	17	9	16	11	5	**12**
- 국제무역	29	35	35	45	41	33	**30**
- 국제투자	35	40	35	30	30	34	**37**
- 고용	6	7	6	10	12	5	**6**
- 물가	50	47	54	53	48	51	**49**

□ (정부효율성: 34→36위) **기업여건**(1↑) 분야 순위가 **상승**하였으나 **재정**(6↓)·**조세정책**(1↓)·**제도여건**(1↓)·**사회여건**(2↓)에서 **순위 하락**

○ (재정)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(35→50위, 서베이), GDP 대비 재정적자비중(6→9위)·정부지출비중(15→18위) 등 하락

○ (조세정책) GDP 대비 자본 및 재산세 총합(57→60위) 등 하락

○ (제도여건)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(43→46위, 서베이), 정부 정책의 투명성(36→38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기업여건) 국내·외 자본시장 접근성(27→25위, 서베이) 등 상승, 이민관련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방해도(27→29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사회여건) 사회 응집력 정도(40→44위, 서베이) 등 하락

	'16	'17	'18	'19	'20	'21	'22
정부 효율성	26	28	29	31	28	34	**36**
- 재정	20	19	22	24	27	26	**32**
- 조세정책	18	15	17	18	19	25	**26**
- 제도여건	25	29	29	33	29	30	**31**
- 기업여건	46	48	47	50	46	49	**48**
- 사회여건	40	42	38	39	31	33	**35**

□ (기업효율성: 27→33위) 금융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으나, **생산성**(5↓)· **노동시장**(5↓)·**경영활동**(8↓)·**행태가치**(2↓) **순위 하락**

○ (생산성)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(22→35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노동시장) 근로자 동기부여도(43→52위, 서베이), 인재유치 우선도(6→18위 서베이), 두뇌 유출도(24→33위 서베이) 등 하락

○ (**금융시장**) 금융서비스 사업활동 지원도(42→47위, 서베이) 등 하락, 기업에 대출이 용이한 정도(41→39위, 서베이) 등 상승

○ (경영활동)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(20→35위, 서베이), 기업가정신 공유도(35→50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행태가치) 사회 가치관의 경쟁력 지지도(26→33위, 서베이) 등 하락

	'16	'17	'18	'19	'20	'21	'22
기업 효율성	48	44	43	34	28	27	**33**
- 생산성	38	35	39	38	38	31	**36**
- 노동시장	51	52	53	36	28	37	**42**
- 금융	37	35	33	34	34	23	**23**
- 경영활동	61	59	55	47	36	30	**38**
- 행태가치	38	36	30	25	15	21	**23**

□ (인프라: 17→16위) **기술**(2↓)·**과학**(1↓) 인프라와 **보건·환경**(1↓) **순위 하락**에도 **기본인프라**(2↑)·**교육**(1↑) 분야 중심으로 **상승**

○ (기본인프라) 도로(27→26위), 에너지 생산량(27→25위) 등 상승, 철도(17→20위), 인구성장률(42→50위) 등 하락

○ (기술인프라) 공공 및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도(38→46위, 서베이),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지원도(45→48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과학인프라)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(25→30위, 서베이), 법률의 과학연구혁신 지원도(30→31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보건·환경) 환경법규의 경쟁력 저해도(41→50위, 서베이), 보건 인프라가 충분한 정도(12→14위, 서베이) 등 하락

○ (교육) GDP대비 총 공교육비 지출액 비중(38→42위) 등 하락, 1인당 총 공교육비 지출액(27→26위) 등 상승

	'16	'17	'18	'19	'20	'21	'22
인프라	22	24	18	20	16	17	**16**
- 기본 인프라	24	27	22	23	20	18	**16**
- 기술 인프라	15	17	14	22	13	17	**19**
- 과학 인프라	8	8	7	3	3	2	**3**
- 보건·환경	35	35	32	32	31	30	**31**
- 교육	33	37	25	30	27	30	**29**

참고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

<table>
<tr><th></th><th>주 요 내 용</th></tr>
<tr><td>기관</td><td>▸ IMD(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)
(국제경영개발대학원, 스위스 로잔)</td></tr>
<tr><td>발표</td><td>▸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(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)</td></tr>
<tr><td>대상</td><td>▸ 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3개국*
* 전년의 64개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외, 바레인 신규 추가</td></tr>
<tr><td>목적</td><td>▸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*을 평가
* (국가)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
(기업)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</td></tr>
<tr><td>구성</td><td>▸ 4대 분야, 20개 부문, 334개 세부항목*(보조지표 제외시 255개)
* 통계자료: 163개 + 설문조사: 92개 / 보조지표: 79개
<table>
<tr><th colspan="5">경제성과</th><th colspan="5">정부 효율성</th><th colspan="5">기업 효율성</th><th colspan="5">인프라</th></tr>
<tr><td>국내경제</td><td>국제무역</td><td>국제투자</td><td>고용</td><td>물가</td><td>재정</td><td>조세정책</td><td>제도여건</td><td>기업여건</td><td>사회여건</td><td>생산성</td><td>노동시장</td><td>금융시장</td><td>경영활동</td><td>행태가치</td><td>기본인프라</td><td>기술인프라</td><td>과학인프라</td><td>보건환경</td><td>교육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자료</td><td>▸ (통계) 국제기구, 각국 정부통계,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*
* 국제기구 (IMF, World Bank, OECD, ILO 등), 정부통계(통계청 등), 민간기업 (Mercer HR Consulting - 생계비지수 등)
▸ (설문)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(한국: KIEP)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(최소 80명 이상 응답자 확보)</td></tr>
</table>

참고2 국가별 순위변동표

국가	순위			국가	순위		
	'20	'21	'22		'20	'21	'22
덴마크	2	3	1	**태국**	29	28	33
스위스	3	1	2	**일본**	34	31	34
싱가포르	1	5	3	라트비아	41	38	35
스웨덴	6	2	4	**스페인**	36	39	36
홍콩	5	7	5	**인도**	43	43	37
네덜란드	4	4	6	슬로베이나	35	40	38
대만	11	8	7	헝가리	47	42	39
핀란드	13	11	8	사이프러스	30	33	40
노르웨이	7	6	9	**이탈리아**	44	41	41
미국	10	10	10	포르투갈	37	36	42
아일랜드	12	13	11	카자흐스탄	42	35	43
UAE	9	9	12	**인도네시아**	40	37	44
룩셈부르크	15	12	13	칠레	38	44	45
캐나다	8	14	14	크로아티아	60	59	46
독일	17	15	15	그리스	49	46	47
아이슬란드	21	21	16	**필리핀**	45	52	48
중국	20	16	17	슬로바키아	57	50	49
카타르	14	17	18	**폴란드**	39	47	50
호주	18	22	19	루마니아	51	48	51
오스트리아	16	19	20	**터키**	46	51	52
벨기에	25	24	21	불가리아	48	53	53
에스토니아	28	26	22	**페루**	52	58	54
영국	19	18	23	**멕시코**	53	55	55
사우디아라비아	24	32	24	요르단	58	49	56
이스라엘	26	27	25	**콜롬비아**	54	56	57
체코	33	34	26	보츠와나	-	61	58
한국	23	23	27	**브라질**	56	57	59
프랑스	32	29	28	**남아프리카공화국**	59	62	60
리투아니아	31	30	29	몽골	61	60	61
바레인	-	-	30	**아르헨티나**	62	63	62
뉴질랜드	22	20	31	**베네수엘라**	63	64	63
말레이시아	27	25	32				

*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(진하게 표시) 27개국 중 9위